

미래낙농의 싱크탱크, 낙농정책연구소



배 정 식
본회 지도부장

우리들은 지난해 말 낙농정책연구소를 어렵게 출범시켰다. 당연히 연구소는 미래낙농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당면한 현안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개발과 대안제시를 요구받고 있다. 요즘 대통령 당선인이 말해 회자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처럼 낙농현안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시원하게 뽑아주시길 기대하고 계실게다.

낙농정책연구소를 향한 높은 기대치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은 분명 크다. 연구소가 과연 제 기능을 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교차한다. 기대를 크게 가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닌 분들도 계실 것이다. 6천호 낙농인들의 입맛에 모두 맞는 메뉴를 다 내놓기에는 분명 한계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으로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큰 자부심이자 역량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에서 소비량 기준 1위인 쌀의 고지를 넘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우유다. 겨우 6천호 낙농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먹거리인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마땅히 낙농생산기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대책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낙농호수가 줄어드는 만큼 남아있는 농가들이 우유생산기반을 어느 정도 흡수했지만, 앞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에 더욱 그렇다.

올해는 시행 첫해인 원유가연동제 도입과 반복되고 있는 육우, 송아지 대책, 낙농환경 문제가 최대 화두다. 따라서 원유가연동제의 정착률을 위한 논리개발과 육우송아지 유통정상화를 위한 근본대책수립, 환경부의 가축분뇨선진화대책에 대응한 대책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013년도는 이들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연구소가 대안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낙농제도개혁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학교급식 제도화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과 FTA 낙농피해보전대책 마련에도 주력해 나갈 것이다. 연구소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마법의 상자도 아니고,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지만 든든한 지원군으로 틀림없이 자리매김할 것이다.

낙농역사는 흘러왔다.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라 많은 변화의 어려움 속에 생산주체로서 낙농업을 한 축을 이끌어 왔다. 이제 우리들은 명실공히 삼각편대를 갖추었다. 우리 협회와 낙농자조금, 낙농정책연구소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는 3이라는 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중심축이라고 했다. 동양적인 수의 의미로도 3이란 숫자는 만물을 창조하며 변화를 열어나가는 행운을 상징한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낙농산업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틀을 가진 셈이다. 정말 우리 낙농인들이 자랑스럽다. ☺